

성석제가 들려주는 불꽃 튀는 현재진행형의 이야기

작가는 현재의 독자 위해 글 쓰는 사람



“사람은 늘 변합니다. 자신이 의식하던 안하던 간에, 그럼에도 또 변하지 않는 부분도 있기 마련입니다. 이번 창작집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하고 쓴 것은 아닙니다. 그 소설을 쓸 때 느끼고 있던 것들이 그렇게 표현된 것 일뿐입니다. 바뀐 것 같다고 하는데 그건 예전부터 제 소설에, 제 안에 있던 것들입니다. 이번 소설에서는 좀 두드러지게 표현되었다고 할까요.”

소설가 성석제 씨가 《참말로 좋은 날》이란 소설집으로 2년 만에 우리 곁에 돌아왔다. 이번 소설집은 ‘성석제표’ 소설을 기다려온 이들에게는 약간의 당혹을 안겨줄 수도 있겠다. 특유의 해학과 사설 대신 생선살을 발라내듯 현실의 위선과 가식을 제거하고 앙상한 등뼈만을 보여주는 데 주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사동의 한 찻집에서 만난 성석제 씨는 이번 소설집의 변화에 대한 기자에 질문에 위와 같이 대답한다. 1986년 시로 등단한 이래, 1990년대부터 눈부신 소설들을 쏟아냈던 소설가. 그리고 보니 그의 작품은 다양한 형식과 소재로 매번 독자에게 행복한 ‘긴장’을 주었지만 언제나 그 바탕에는 ‘현실과 인간’이 있었다. 다른 때는 측면에서 보았다면 이번에는 바닥까지 내려갔다는 것이 그 차이라고 할까.

책에 실린 일곱 편의 소설은 지난 2년간 작가의 관심사를 그대로 드러낸다. 작가는 이 기간 동안 충언을 하다 죽어간 조선시대의 한 선비를 알게 되었고, 웰빙으로 사는 이들이 과연 ‘웰빙적’으로 죽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했고, 무능한 ‘법’과 무력한 ‘가장’에 대해 고민해 보았을 것이다.

“한동안 소설이 현재에 대한 즉각적 반영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내면에서 발효될 수 있는, 문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여겼죠. 그래서 어떤 현실을 만났을 때, 그것을 빨리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소설을 써오다 보니 어느 날부터는 이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설은 무생물이 아닌 생물이니까, ‘소설이 현실의 변화에 따라 그 현실과 대화 할 수도 있다’, ‘현실의 즉각적 반영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 그런 것이 이번 소설집에 많이 반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발효를 거치지 않은 현재진행형의 이야기인 만큼 읽는 이도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먼저 느낀다. 절제된 문장과 건조한 이야기를 치고 올라오는 감동에 눈앞은 불꽃이 튀는 듯하고, 어느새 심장은 빠근해 진다.

시를 쓰던 그가 1995년, 계간지 《문학동네》에 처음으로 〈내 인생의 마지막 4.5초〉란 소설을 발표했을 때, 이 기발한 작법과 소재에 다들 놀랐다. 이렇다할 습작기도 거치지 않은 그였지만 이미 기성 작가를 뛰어넘는 일종의 ‘완성

된’ 경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다. 그 후 발표된 그의 소설들은 문학적 깊이를 담보하면서도 대중과 호흡을 함께 하는 ‘성석제표’ 소설로 자리매김해왔다. 반 페이지를 넘어가는 사설조의 문장, 천연덕스러운 사투리, 웃음 뒤에 은근슬쩍 남겨지는 삶의 비의. 그의 펜 아래서는 숭고한 영웅도 위엄을 벗고, 시골의 촌로도 신성(神性)을 획득했다. 다종다양한 그의 주인공들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흘러오는 것일까.

“여행을 좋아합니다. 특히 사람에 대해서는 호기심이 많죠. 그러다보니 자연 듣는 얘기도 많고, 그런 것들이 소설에 투영됩니다. 현장의 이야기들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소설 쓸 때가 되면 슬며시 올라옵니다.”

근래 들어 심사나 강연 같은 ‘비소설적’인 일을 많이 한다는 그이지만 그런 비소설적인 일상이 녹아 소설가다운 그의 상상력과 현실에 뿌리 내린 서사의 힘을 잃지 않는 것이리라.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잘 모르는 얘기’를 써보고 싶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타성에 젖은 얘기가 아닌 스스로가 흥미를 느끼는 얘기를 써야 작가도 독자도 즐길 수 있다는 말 같다.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덧붙이는 그의 눈빛이 소년의 그것처럼 반짝거린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작가는 미래나 과거의 독자가 아닌, 현재의 독자를 위해 글을 씁니다. 흘러간 이야기를 쓰더라도 읽는 사람은 현재의 독자인 것입니다. 사람들과 공감하고, 나아가 그들이 감동할 수 있는 이야기. 쓰는 사람도 읽는 사람도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소설을 쓰고 싶습니다.” ■